

국악계의 외인구단, 비개비



김문성 차장
교육콘텐츠팀

“침묵하고 인내하고 고요의 세계에 몰입하는 법을 배우려 춤을 추었다.” 한때는 법무부 수장이었던 강금실 변호사는 국악에 대한 세간의 시선이 곱지 못한 시절, 그렇게 거거리 춤에 빠져 들었다.

“판소리는 감정과 배경 등 모든 것을 껴야 이면을 살릴 수 있는데, 그것이 재판과 닮아있다. 그래서 소리에 빠졌다”는 민일영 대법관은, 임명 직후 판소리의 매력을 묻는 한 기자에게 서슴지 않고 ‘서시동시론’* 으로 국악의 맛을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대법관이 생방송 중 양복바람으로 홍보가를 부르고, 장관은 흐느적거리는 맛이 일품인 기생 거거리춤을 추는 나라. 한 때는 천한 광대나 기생의 예술로 치부되던 국악이 이제는 생활음악이자 국위선양의 대표적인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다. 국악기 하나쯤은 배워보고 싶은 욕구가 보편화된 시대에 걸맞게 많은 비개비가 양산되고 있으며, 그들이 판치는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국악계에서는 금줄을 달 때부터 소리를 접하고, 소리로 생계를 잇는 전문소리꾼을 ‘개비’(甲伊), 어느날 갑자기 소리에 미쳐 소리판에 뛰어든 일반인을 ‘비개비(비甲伊)’라 구분하여 부른다.

대표적인 비개비로는 우리 위원회 중재위원을 역임했던 강금실 변호사를 꼽을 수 있다. 부산지법 판사시절, 무시로 진주 명기 김수악(1926~2009)을 찾아가 그녀의 거거리춤, 검무 등을 사사받았다. ‘춤꾼보다 춤을 더 잘 춘 판사’라는 애칭과 함께 ‘법복보다는 남색 치마에 미색저고리를 입고 웃음을 흘리며 자주고름 나풀거리는 모습이 더 잘 어울린다’는 평가가 늘 따라다녔다. 그녀 역시 ‘장관이 안 되었으면 전통무용가가 되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전문 춤꾼들이 5년 혹은 그 이상 걸려 배우는 거거리춤을 3년 만에 떼자 김수악은 ‘판사고 뭐고 다 때려치이뿌고 내 옆에서 춤이나 춘나’고 그녀의 춤 실력을 인정했다. 비개비 중의 갑으로 꼽힌다.

민일영 대법관 역시 국악의 끈을 놓지 않는 대표적인 비개비로 유명하다. 많은 국악인들은 “조금만 더 일찍 국악에 빠졌더라면 대법원이 아닌 풍류방에서 한량으로 살고 있을 법조인”으로 술화한다. 영화 서편제가 계기가 되어 비개비의 길을 걷고 있는 민일영 대법관은 대법원과 집 다음으로 국악 공연장을 많이 찾는다. 송순섭 명창이 2011년 국립극장에서 5시간 동안 수궁가를 완창할 당시 내내 자리를 지키기도 했다. 판소리 중 홍보가 ‘화초장대목’을 잘 부른다.

강금실 변호사나 민일영 대법관과 달리 아예 국악계 일원이 되어 활동하는 비개비도 많다. 창작음악계의 대부 항병기가 대표적이다. 산조라는 정형화된 가야금 연주를 넘어 새로운 주법으로 ‘침향무’, ‘미궁’, ‘비단길’ 같은 주옥같은 작품을 선보였다. 국악에 문외한인 사람들조차도 그의 창작곡 한두 곡쯤은 익히 알고 있다. 고교시절 취미로 접한 가야금에 빠져들고 있던 그에게 서울대 법대는 그저 거추장스러운 타이틀이었을 뿐이다.

최근 월산문화상을 수상한 이소라 역시 국악계의 대표적인 비개비 국악인이다. 서울대 법대 입학 당시 1백여 명의 학생 중 유일한 여학생으로 유명했다. 사법시험 준비차 절에서 공부하던 중 폴베레 소리에 필이 꽃혀 법학도의 꿈을 접고, 그 길로 음악도로 전향한 케이스이다. 각 지방의 농요를 오랫동안 연구하는 등 토속민요 연구가로서 많은 족적을 남기고 있다.

이들 말고도 많은 비개비들이 국악계 복판과 변죽을 부단히 오가고 있다. 무엇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이들을 외로움의 늪이라 부르는 국악계로 끌어들이일까? 길가의 잡초조차 쳐다도 안 본다는 비개비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국악의 매력은 무엇일까?

*서시는 중국 월나라 미녀로 위장장애가 있어 미간을 찌푸리고 다녔는데, 같은 마을에 사는 춘녀 동시가 그것이 서시의 매력인 줄 알고 똑같이 미간을 찌푸리고 다니다가 결국 망신을 당했다는 일화로, 우리 음악이 무작정 서양음악 흉내내기만 하느라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비유한 것임